



제목	터키의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갈등: 탁심 게지공원 시위를 중심으로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문제연구 제14권 1호)
발행일	2015. 4. 1.
저자	조상현, 금상문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1-26
ISBN 또는 ISSN	1598-3633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터키의 역사적,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간의 갈등을 2013년 5월 터키 탁심광장 게지공원 시위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다. 저자는 게지공원의 시위가 현상적으로는 작은 공원의 재개발 관련 문제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으로 인식한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슬람주의’가 아랍중동국가의 이슬람주의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슬람국가 설립을 주장하는 아랍중동국가의 이슬람주의와 달리, 터키의 이슬람주의는 정책적으로 이슬람의 원칙을 주장하기 때문에 ‘온건 이슬람주의’라고 일컬어진다고 한다. 저자에 의하면 터키의 온건 이슬람주의는 두 부류인데, 하나는 에르도안(Erdoğan)의 ‘이슬람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켈렌(Gülen)의 ‘이슬람주의’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가 다루는 것은 에르도안의 이슬람주의이다. 터키는 1924년 칼리프제도를 폐지하고 탈이슬람적 개혁을 시행하면서 세속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후 이러한 세속주의에 대한 반발로 인해 터키는 여러 번의 정치적 변화를 겪었으며, 그때마다 세속주의의 대표 격인 군부의 개입이 있었다. 저자는 터키의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변동과정을 고찰한 결과, 터키에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갈등이 존재하고, 터키의 정치변동과정에서 군부의 역할과 군부의 정치변동 개입을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갈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터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정치변동 과정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